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시 확대까지

# 워드 클라우드 분석으로 본 교육 이슈 변천사

##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

#대입 개편안

###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년에 고시된 우리나라의 열 번째 교육과정. 슬로건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다. 예체능이나 생활 교양 과목을 빼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과정인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을 공통으로 배우고,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 등 선택 과목은 2~3학년 때 배우게 된다.



### 문·이과 통합

2018년부터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실시됨에 따라 문·이과 구분 없이 가르치는 것. 대표적으로 고1 모든 학생이 계열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운다.

### 대입 개편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학생들의 대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 권고하는 등 대입 전형 구조 개편, 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추천서 폐지 등 학생부 종합 전형 공정성 제고, 수능 체제를 선택형 구조로 개편, 블라인드 서류 평가로 대학별 고사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42호 '계획의 신에 도전하라'부터 888호 '문송 시대 끝? 문지마 이과 주춤, 계열 선택 변화 조정까지 47개 호의 목차 내용을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해 빈출 키워드를 찾음.

2018년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 도입되면서, 문·이과 통합, 그로 인한 유불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 발표 내용까지 맞물려 독자들의 고교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시기였죠(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해마다 등장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교육과정 설계가 보다 유연해짐에 따라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역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에 따르면 2018년 1년간 <내일교육> 주요

목차에 '선택'이라는 키워드는 51회나 등장했습니다. '교육과정 선택' '탐구 과목 선택'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풀이됩니다. 그 뒤를 이어 '개편안' 키워드가 많이 검색됐습니다. <내일교육>은 2022 대입 개편안을 심층 진단하는 고교 교사 설문조사를 진행해 기사화했습니다. 이어 '2022 대입 개편 방안 및 고교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 관계자의 대담 시간을 마련해 지상 중계하는 등 깊이 있게 주제에 접근하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창간 이래 <내일교육>은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정보와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쉽없이 달려왔습니다. 주요 입시 관련 기사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수업 변화, 진로 교육, 가정에서의  
 자녀 생활 지도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변화하는 내용을 발 빠르게 전하고자 노력했죠.  
 너무 자주 바뀌어 종잡을 수 없다는 교육 정책과 입시 제도의 변천사 역시 <내일교육>의 지난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최근 3년 치 주요 기사를 추려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해봤습니다.  
 해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끈 교육 이슈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시죠.

정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 2019

#자사고 취소

#고교학점제

#정시 확대

### 자사고 취소

교육부는 2019년 11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대입 위주  
 교육으로 고교를 서열화했다고  
 보고,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일반고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

### 정시 확대

2022 대입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핵심이자, 최대 관심사로 꼽혔다.

### 고교학점제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듣는  
 대신,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는 제도.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과목별 성취 기준에 도달할 경우  
 학점을 인정하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의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을 충족하면 고교 학력을  
 인정받는다.



889호 '반코막 난 1등급\_수능 영어, 어느 장단에 맞추나' 부터  
 935호 '취업 보장? 이면까지 살펴라 계약학과 다시 보기'까지  
 47개 호의 목차 내용을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해 빈출 키워드를 찾음.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내일교육> 목  
 차에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정시' '자사고' '진로' '전공' '학  
 과' 등이었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등장한 자사고  
 취소·폐지 논란은 고등 학부모뿐 아니라 중학생 자녀를 둔  
 독지들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내일교육>은 중등 학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931호 중등 섹션에서 '정시 확대와 특  
 목·자사고 폐지 직격탄 맞을 중학교 현장'을 미리 전망해보  
 는 기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정시 확대' 역시 2019년 한

해를 뒤흔든 교육 이슈였습니다. 주요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늘리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상  
 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면 수능에 올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솔솔 흘러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진로와 학과에 대한 기사도 꾸준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분  
 석 결과 목차에 등장한 '진로' 키워드 횟수는 22회, '전공'은 무  
 려 19회였습니다. 연재 기사로 새롭게 선보인 '新학과 열전'이  
 나 '같은 듯 다른 전공 사전'에 대한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